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조주록 선해를 마치며

선불교의 특징은 선사들의 독특한 선문답에 있다. 선문답의 시원(始原)은 부처님 초기 설법인 아함경류에서 나오는 비유설화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부처님은 아함경류에서 사람들이 재미있게 들으면서 유익한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비유와 설화를 많이 채택하여 설법했다.

이것을 이어받아 선사들의 선문답 역시 비유가 많이 들어 있다. 선문답은 처음 들어 보면 엉뚱한 말같이 들린다. 이것은 선문답이 몇 단계를 생략한 언어, 비유, 지시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인들에게는 마치 암호와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불교의 핵심 사상은 "존재하는 것은 모두 공이고[色即 是空], 공은 곧 존재이다[空即是色]"라는 구절 속에 들어 있다. 존재는 여러 요소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실체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존재는 곧 법이고 법은 곧 존재인 것이다. 불교는 이것을 깨닫고 사람들이 세우는 각종 가치나 개념에 흔들리지 말기를 바라고 있다.

선불교 역시 각종 가치와 개념을 부정해 들어간다. 이들 가치와 개념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명칭 붙여진 것에 불과하다. 언어나 명칭은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이다. 도구는 쓰다보면 망가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필요 없으면 버린다. 영원한 것이 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에 크게 집착할 일이 아니다. 진실은 언어와 문자를 떠나서 있다.

선불교에서 깨달음을 중시하는 것은, 아는 것으로서는

인습의 벽을 무너뜨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깨달음은 깊은 각성이고, 깨달음의 순간 습성은 버려지게 된다. 깨달음을 통해 비로소 인생이 뒤바뀌는다. 중생에서 부처로, 어리석음에서 현명함으로, 습관의 세계에서 무습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보는 세상은 보통 사람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 습관과, 가치와 문자의 개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생각도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는 사람도 말을 해야 하고 질문에

선문답, 초기 비유 설화에서 채택

<전심법요> <완능록> <임제록> <조주록>

순서로 읽어 선의 묘리 체득하길

답변도 해야 한다. 문자의 개념과 습관과 가치를 떠나서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비유로 대답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엉뚱한 듯한 말을 하는 것이다. 이들 선어(禪語)들은 보통 사람의 관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서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게 되어 있다. 어찌 보면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대화가 선어(禪語)인 셈이다.

선(禪)을 이해하려면, 우선 황벽 스님의 <전심법요>, <완능록>을 먼저 읽어보고, 다음으로 <임제록> <조주록>

을 읽는다면 이들 선사에서 한결 같이 흐르는 선의 묘리를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임제록>은 임제 스님의 당찬 선의 기상을 통해 바로 들어가는 길을 체험할 수 있고, <조주록>에서는 조주 스님이 비유와 재치로써 사람을 깨닫게 하려했던 지시가 많이 들어있어 선사들의 정신과 다양한 선의 표현법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또 <조주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선사들이 수많은 남자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때는 남자가 궁극한 것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방만한 남자가 선적 해석이나 선적 입장을 들어 보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있고, 어느 때는 조사가 서쪽에서 온 도리를 직접 물어서 선사의 대답을 들어보려고 한 것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대답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당시에 선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주록>의 대답을 통해 오늘날 한국의 선불교에도 시사해 주는 바가 많다고 생각한다.

지난 2년간 수많은 선문답을 올리고 그때마다 본 남자가 사족을 달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단 한 곳도 조주 선사의 진의를 전달한 곳이 없으니 독자들에게 죄송하고, 공연히 붓을 놀리어 역대 선사들에게 누를 끼쳤다. 이어 짜 진흙 소가 철봉(鐵棒)을 먹고 금강(金剛)이 출혈을 보이는 일이 아니겠는가. 구덩이 무거운 것이라 생각한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묵묵히 선(禪)을 알리는 일에 자리를 내주었던 현대불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무불선원 선원장

깨달음은 깊은 각성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50



규수를 데려가는 것이 바로 별자리가 길상한 것이 아닐까

(본생 이야기(자타카))

부처님의 본생이야기, 즉 과거세 이야기는 하나의 불전(佛傳)문학이다. 그 문헌 텍스트를 읽다보면, 하나하나의 이야기마다 길으로 드러나 있는 의미가 있고, 속으로 감추어져 있는 의미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즉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역시 두 겹이라는 뜻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다. 혼기가 가득차 있었기에 딸을 결혼시키려, 시위를 구했다. 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집안끼리 정혼하는 것이야 관습이었다. 어느날 결혼식을 올리자, 이렇게 약속을 해버린 것이다.

자식과 관련된 일 앞에서 부모라는 이들은 흔히 길을 잃는다. 발가벗은 고행자(아지비카교도, 샷되게 밥먹고 사는 사람들)라는 뜻으로 사명외도(那命外道)라 불린다를 찾아가서 그날이 길일인지를 물어봤다.

그런데 이 고행자, 속이 그렇게 넓지 못했다. 애당초 자기에게 와서 날을 받아갔어야지, 자기네끼리 날짜를 다 정해놓고 와서 묻다니... 뭐, 이런 식으로 패썹죄를 거는 것 아닌가.

결혼하기로 한 날에 뭐가 많이 끼었다는 것이다. "별자리가 매우 불길합니다." 두려움이 많아서 날을 물어보았던 것이기에, 이 불길하다는 선고 앞에서 어찌 그 아버지가 당당할 수 있었으랴. 정해진 날에 딸을 보내지 않았다. 신랑 측의 혼란은 볼 게 보듯 뻔한 일, 혼사는 떨어지고 싸움만 일어나고 말았다.

여기까지가 표층의 의미이다. 이 이야기의 메시지 자체는, 신랑이 와서 처녀를 데리고 가는 일은 그 자체가 경사스런 일이다. 그러나 그런 경사가 생긴 날이 곧 길일(吉日)이라는 뜻이다. 따로이 길일을 구하지 마라.

결로 드러난 이러한 의미만 해도 사실 가벼운 것은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별자리를 보는 점성술이 성행할 뿐만 아니라, 사주 명리 타로 굿 등의 산업이 번성하고 있지 않나. 아직도 여전히 그러한 것에 의존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들이다. 슬픈 자화상이다. 그래서 길일을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는 날이 곧 길일이라는 인식의 전환은 크게 다가온다.

그런데 본생이야기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발가

벗은 고행자가 남의 혼사를 방해하고, 그런 사도(邪道)의 사람들에게 길을 묻는 일이 금생에서 비로소 처음은 아니라는 점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발가벗은 고행자가 양가(良家)의 잔치를 휘방놓은 일은 지금 뿐만이 아니다. 과거에도 똑같이 그가 그들에게 앙심을 품고 잔치를 휘방놓은 적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그 과거세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신다. 이야기의 열개는 같다. 다만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두 번째로 들려주시는 과거세이야기에서는 구체적인 때와 장소가 등장한다.

"그 옛날 바라나시에 브라흐마닷타



그림 · 박구원

왕이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처럼 말이다. 이야기의 생생함을 위해서이리라.

또한 앞의 이야기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등장한다. 지혜로운 사람의 역할은 이 상황을 다 듣고 보고서, 적절한 평가를 내려주시는 것이다. "별자리가 대체 무슨 이익이 되는 것일까? 규수를 데려가는 것이 바로 별자리가 길상한 것은 아닐까?" 이 지혜로운 사람이야말로 바로 부처님의 전생이 섰음은 두 말할 나위없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이다. 우리 삶은, 세월이 흐르는 것만으로는 개선되지 않는다. 과거의 삶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라. 이것이 심중에 숨어 있는 메시지다. 제발, 다가오는 새해는 금년의 반복이 아닐길 기원해 본다. 지난 시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까닭이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주성원의
기초 교리 <45>

삼십칠보리분법(三十七菩提分法) ① 사념처(四念處)

원시불교에서 명상수행을 나타내는 말로는, 마음을 가다듬어 정신을 집중하는 선(禪)과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여 흔들림이 없는 상태인 정(定), 그리고 잊지 않고 주의 기울여 마음에 새기는 법(念: sati) 등이 있다. 이 중 법은 사념처(身念處) · 수념처(受念處) · 심념처(心念處) · 법념처(法念處)의 네 종류로 분류돼 사념처(四念處)라 하는데 원시불교에서는 이것을 수행하면 다른 수행도는 필요 없다고 여겨 일승도(一乘道)라 부를 만큼 중요하게 여겼다.

사념처는 몸[身] · 감수작용[受] · 마음[心] · 마음의 대상[法]의 네 가지가 무상 · 고 · 무아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으로서 인간과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한 진리를 다 망라해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 몸은 부정한 것이며 감수작용은 고통을 수반하고 마음은 무상하며 법[대상]은 실체가 없는 무아임을 통찰하는 수행법이다.

원시경전에서 의하면 이 사념처를 수행하는 목적은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정화하고 비애를 극복하며 번뇌를 떨치고 바른 이치를 통찰하여 열반을 얻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번뇌를 소멸하고 열반을 증득하기 위한 수행으로 원시경전에서는 우선 사념처를 거론한다.

마음정화 · 괴로움 극복의 수행법

신념처는 인간의 몸에 대해 주의깊게 관찰하는 수행이다. <념처경(念處經)>에서는 사념처의 내용을 여섯 가지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주의깊게 들숨과 날숨을 쉬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이 움직이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며 셋째는 팔의 구부림이나 옷과 바투의 소지 등에 대해 바르게 아는 것이다. 넷째는 신체의 각 부분이 부정한 것을 관찰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이 신체를 지(地) · 수(水) · 화(火) · 풍(風)에 기반해서 관찰하는 것이며 여섯 번째는 묘에 버려진 사체의 여러 가지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섯 가지 사념처는 표현이 다를 지라도 우리의 몸은 생멸하는 청정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부정한 몸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념처는 괴로움이 의지하는 장소인 이 몸을 바르게 관찰하는 수행을 통해 그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려고 한 것이다.

수념처는 인간의 감수작용은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며 무아라는 것을 주의 깊게 새기는 수행법을 말한다. 예컨대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미디어와 영상오락물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가 눈과 귀로 보고 듣는 이 현란하고 화려한 세상이 사실은 무상한 것이고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감각을 통해 받아 들여진 아름다운 것 · 좋은 것 · 맛있는 것 등이 실제로는 고

정된 실체가 없어 허망한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사려 깊게 관찰한다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탐욕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혐오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념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심리에 대한 집착 증오 등을 극복하려는 수행법이다. 예컨대 만났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괴롭다면 그 괴로운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무상한 마음을 무상하지 않은 것으로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사념처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각을 마음에 새기는 순간 전 찰나의 집착하는 마음은 과거로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생멸변화하는 마음은 마음의 대상에 따라 일어난다. 법념처는 이 마음의 대상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리고 무상인 법을 자각함으로써 괴로움을 없애는 수행 방법이다. 예컨대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많은 전쟁의 역사 중에 어떤 이익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한 것 보다는 견고한 신념의 충돌로 인해 일어난 전쟁이 가장 잔인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정신적인 대상에 대한 집착은 그 대상이 자아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고 무상한 것임을 마음깊이 되새기는 법념처의 수행에 의해 영원불변의 진리라고 고집함으로써 일어나는 비극적인 괴로움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本지기자

**사라져 가는 팔공산 범음 범패
염불소리를 살리고자 (동현)소승이
교육원을 개원하고
제 1기 수강생 을 모집합니다**

교육현황

초급 익식 염불과정		▷과 목 : 초발심자경문, 사미율법, 비루공양법, 요령묵타사용법, 천수경, 반야심경, 새벽도량석염불, 팔공산소리새벽종성염불, 각단예불, 각축원편, 사사미지불공, 관음사시
일반	6개월 (주1회 2시간)	
속성	3개월 (주1회 3시간)	

중급 익식 염불과정		▷과 목 : 시련, 삼신이음, 104위신중작법, 시다림, 49재천도익식, 다비편, 방생편, 각종교사, 각점안식염불, 구병사시, 생전제수재의문
일반	12개월 (주1회 2시간)	
속성	6개월 (주1회 3시간)	

특수 작법

6개월 과정 (주1회 2시간)	▷ 복창계, 사다라니바라, 천수바라, 사물타법 도량계(나비춤), 오공양작법, 화청
------------------	---

* 작법은 (일반) : 속성이 따로 없음

모집인원

- 35명 (선착순) ※ 개강 이후 1기 졸업시까지의 중간에 수강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모집기간

2012년 12월 1일 - 2013년 2월 28일까지 마감

※ 신청하실분은 본원에 직접 나오셔서 접수하시고 교육일정 시간표를 꼭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수강신청 접수하시고자 본원에 오실때는 필히 명함만 사진 2매를 가지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수강일

2013년 1월 22일 오후 3시(초급반 일반부)

※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교육원 원장님과 직접 상담하여 주십시오.

▶ 교육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2동 871-1번지
TEL 053)781-4200, 851-2666 / H·P 010-3424-0108

대구불교의식 범음 범패 교육원 원장 동현 합장

설법 · 화술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교육내용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추사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대상

- 종합반 : 00명
- 소수정에 특별반 : 0명
- 개인지도 (직접 상담 후 결정)

연수장비

- 자 격 : 승려, 법사(포교사), 불교포교와 설법 화술에 관심있으신 분
- 기 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 강 의 : 종합반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 8시
소수정에 특별반, 개인지도 - 상담 후 결정
- 장 소 : 본 연수원 강의실
-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진도식 교육이 아니고 훈련식 교육임)

강사소개

[설법연수원 회장 우불 김 철 회 박사]
사)한국산악아문술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최면시술사 40년 노하우를 지닌 우불 김철회 박사 특별지도

[설법연수원 원장 처 명 (선광)]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동방불교대학 졸업
서울 남부구치소 교정(종교)위원
사)한국산악아문술협회 1급 자격증 취득(심리상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한국 설법 연수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3가역 1번 출구
연수원 : 02)747-1567 / 010-7248-1567

**불자님들 스스로, 가정에서 건강 지키기 위한
전통 뜸, 침술, 한약 대특강**

『동양의학방송국』이사장이신 덕운스님께서 중생구제를 위한 일환으로 불자님들에게 건강교육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동양의학을 처음 접하는 분이나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에게 동양의학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2년 12월 19일 (3개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6시)

□ 장 소 : 동양의학방송국 대강당(서울 서초구 방배 2동 467-3호 2층)

□ 강의일정

- ▶ 오후 2시 ~ 4시 : 한방약초 (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한약차 및 한약재 강의)
- ▶ 오후 4시 ~ 6시 : 불가에서 내려오는 응급 상용 침술법 (중풍, 두통, 체기, 위장장애 등등)

□ 접수인원 : 선착순 20명(수강인원 초과시 조기 마감)

□ 회 비 : 각 과목당 월 15만원 (불교인 30%할인)

□ 문 의 : 02)3487-2311

강 사 약 력

- 덕운 스님 법계 : 대덕 / 중급 한의사
- 박정아 한약사 한의학 석사, 의과학 박사 / (사)대한한약사회 여한약사회장 / 저서 한방차 다이어트